

韓半島 先史時代 岩刻의 製作技術과 形式分類

黃 龍 渾

一、머릿말

一九七〇년에 처음 發見·研究되기始作한 韓國岩刻의 數는 그 후 계속늘어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分類研究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도 韓國岩刻 전체에 대한 年代推定이나 그 文化性格의 糾明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岩刻을 製作했던 基本的인 技法과 形式에 대해서도 충분히 調査研究되지 않고 있다. 韓國岩刻에 대한 研究活動의 수행에는 여러가지 意味에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岩刻自體가 어떤 絕對年代를 直接的으로 證明해줄 수 있는 研究對象物이 아닌 까닭에 間接的인 證據를 蒐集하여 그 岩刻의 絕對年代나 文化性格을 傍證해서 推定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힘든 과정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方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隣接地域 岩刻研究의 結果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比較考察하는 과정에 서 재료의 교환 역시 現在의 여건 밑에서는 쉬운 것이 아님으로 韓國岩刻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研究結果의 발표가 아직까지 없었던 原因도 이러한 데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韓國岩刻의 文化性格과 그 製作年代의 設定이 韓國先史文化研究에 不可缺한 部分인 것이 사실인 이상 이제 더 많은 재료의 蒐集만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意味에서 우선 基礎的인 一部分의 研究調査結果라도 그 結果의 발표가 要請됨으로 韓國岩刻研究의 一部

分으로서 韓國岩刻의 製作에 使用된 技法과 이러한 技法을 使用해서 製作된 岩刻의 여러가지 形式의 分類調査를 여기에서 試圖해 보겠다.

岩刻은 바위에 刻線으로 物體를 새긴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調査할 것은 이러한 刻線의 製作技法이 된다. 限定된 도구로서 製作되는 刻線技法은 自然히 그 製作方法의 限界가 決定되어 있다. 現在 韓半島 內에서 發見되는 刻線技法은 세 개의 技法으로 分類되는데 그것은 조각線을 形成하거나 形態를 만드는 方法(Pecking technique)과 岩面을 그어내거나 파내는 方法(Engraving technique) 그리고 岩面을 갈아서 沈線을 만들어 岩刻을 하는 方法(Grinding technique)이로 分類되는 것이다. 韓國의 先史岩刻에 나타나는 技法중 조각내는 方法을 I技法, 그어내어 파내는 方法을 II技法, 그리고 갈아내는 方法을 III技法이라 分類하였고 이 分類에 따라 岩刻의 全體的인 製作手法를 밝혀보고자 한다.

韓半島에서 發見된 岩刻들은 그 모두가 同一한 手法를 使用한 同一한 形式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이번 調査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技法을 使用한 韓國岩刻의 여러 形式은 제 I技法에서는 基本的으로 I형식, II형식, III형식으로 나눈 세 개의 基本形式으로 分類되었고 그것을 더 細分했을 때 모두 六개의 類形으로 區分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II技法을 使用한 岩刻도 IV형식, V형식이라고 分類된 2개의 基本型式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또 四개의 類形으로 細分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 III技法을 使用한 岩刻 역시 VI형식과 VII형식으로 分類된 2개의 두드러진 形式을 使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韓半島에서 發見되는 先史時代岩刻의 技法 및 그것을 使用한 岩刻의 形式을 이 論文에서 일단 綜合分類해서 그 製作上의 技法 및 形式을 整理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韓國岩刻의 製作技術의 問題가 解決되었을 때 이러한 여러 製作技術이 가져오는 文化性格과 各岩刻이 차지하는 相對年代 測定에 의한 岩刻間 先後 順位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또 그중의 몇개 岩刻의 形式과 文樣 比較등을 通해 앞으로 大體적인 絕對年代도 推定해 일단 그 編년도 마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이 論考의 主目的은 이러한 文化性格이나 編年을 試圖해 볼 수 있는 基本 여건이 되는 韓國岩刻의 製作手法와 技法과 形式을 通해 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일단 이論考에서는年代推定이나編年은試圖하지 않겠고 다만 그技法手法를種類別地域別로分類調査하여 그岩刻들의製作時期의先後關係를 알아보고 앞으로의韓半島의岩刻研究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基礎研究作業만을試圖하겠다. 그리고現在岩刻關係의研究調査가相當히進展되고 있다 Scandinavia, 中央 Asia, Siberia, maritime region의岩刻製作技法과形式研究結果를 참고로하여韓國岩刻의製作技法과岩刻類形分類研究의실잡이로삼아韓半島岩刻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製作技法과岩刻形式을일단定立해 보고자 한다.

二、岩刻의製作技法

先史時代의岩刻은陽刻이 아닌陰刻이다. 그러므로基本的으로는沈線을 새기거나 파서 만드는 것이 그主方法이 되고 있다. 그리고岩刻의形式은 이러한沈線을使用해서岩面을 쪼아내거나 파내서 만드는限定된刻法을 여러가지形態로 구사해서製作하는 것이다. 이들岩刻의主技法이 되는刻線의方法은그當時의限定된道具로서製作할 수 있는範圍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답에 자연히 그種類的限界가限定된다.

이러한限定된어진 밑에서 이루어지는先史時代彫刻技法은結局三가지의技法에限定되는 것이다. 즉 그 한가지는 쪼아서線을形成하거나形態를製作하는方法(pecking technique)과 또 한가지는岩面을 다룬 도구를 써서 그어내거나 파내는방법(Engraving technique)이고, 나머지方法은岩面을 갈아내서沈線을 만들거나岩刻을하는방법(engraving technique)이다.①

이렇게 세가지의基本方法으로分類되는技法을 제一技法、제二技法、그리고 제三技法으로區分하여 이技法과연관해서韓半島의岩刻의製作手法를整理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區分한 제一技法은 쪼아서 만드는岩刻技法이다. 이렇게 쪼아서 만드는 제一技法을使用한岩刻은 대부분 그沈線의 폭이 약간 넓다. 대개의 경우 몇 개의例外를除하고는 보통 폭의 넓이가 1cm—3cm에

걸쳐形成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沈線은 그 깊이가 대개 1cm 内外의 것이 報告되고 있다.②(사진 1) 이렇게 만들어진岩刻의沈線은 위가 넓고 밑이 좁아지는 마치 활짝 된 활같은 U形의 단면을 보여 주며 그 밑바닥은 대개의 경우 凸凹이 심하고沈線의 가장자리가 매우 거칠지 못해서 判別하기가 힘들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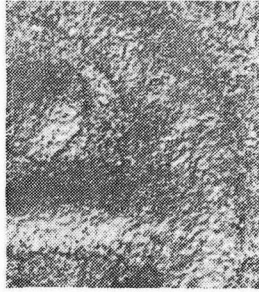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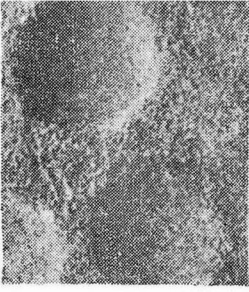
그에서 만드는 제II技法을使用한岩刻은 대개線의 폭이 1cm 미만의 좁은 편이며 깊이가 비교적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刻線은 단단한 돌의 날카로운 끝을使用하거나 금속利器를使用해서製作된다. 그러므로 이런技法에 의해製作된沈線은 대개 V形의 홈을 내거나 깊은 U에 가까운 홈을 낸다. 이技法을使用한先史時代岩刻은靑銅器時代와鐵器時代岩刻에서 주로發見된다.③(사진 2)

같이서 만드는 제III技法을使用한刻線은線의 폭이先史時代岩刻中에서 제일 넓다. 이러한刻線은 처음에 쪼아내거나 그어서 만든 자국을 다시 갈아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同心圓이나渦文또는 다른幾何學的文樣을 새긴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갈아서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刻線의特徵은線의 넓이에 비해 깊이가 아주 얇은 것이다. 대개의 경우 넓이는 1cm에서 5cm에 달하는 것이지만 깊이는 1cm 以內的 것이 대부분이다.④(사진 3)

이상에서 설명한刻線製作의方式들이 Scandinavia, 中央아시아, Siberia, maritime region에서도發見되는 共通의技法들이지만現在韓半島에서發見되는岩刻中에서刻線을할 때使用한方法中에서 이 세가지技法은 모두 다發見되고 있다. (表 1)

韓半島에서 제I技法을使用한岩刻들은蔚州盤龜臺의動物群岩刻의 대부분과南海良阿里발자욱의岩刻이다. 그리고 제II技法을使用한岩刻은川前里下部彫刻、蔚州盤龜臺動物群의一部、南海의尙州와碧蓮里岩刻의一部와八堂文湖里물고기가지技法에 의해 조각되고 있다.

제III技法을使用한岩刻은川前里岩刻의上部同心圓渦文菱形등과南海尙州岩刻의一部、高靈良田里岩刻등이다.岩刻研究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Scandinavia의 경우 제I技法은 가장 오래된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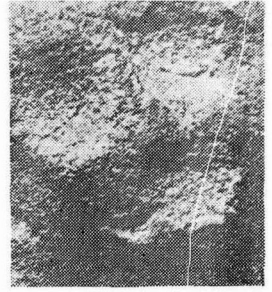


3 b. 第Ⅲ技法(刮아낸 技法)을 사용한 性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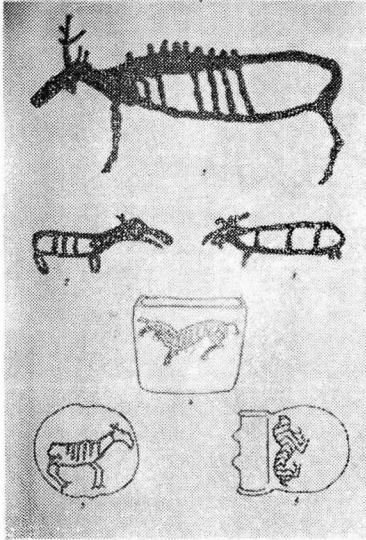
3. a. 第Ⅲ技法(刮아낸 技法)을 사용한 岩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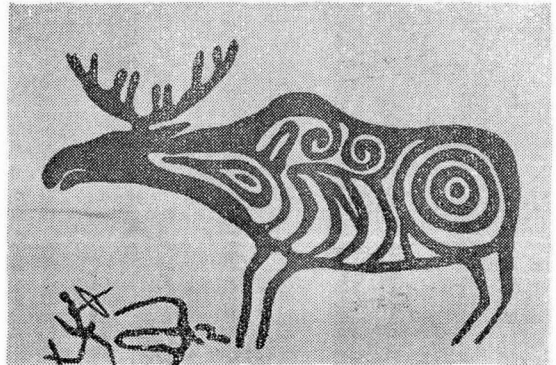
2. 第Ⅱ技法(그어낸 技法)을 사용한 岩刻



1. 第Ⅰ技法(조아낸 技法)을 사용한 岩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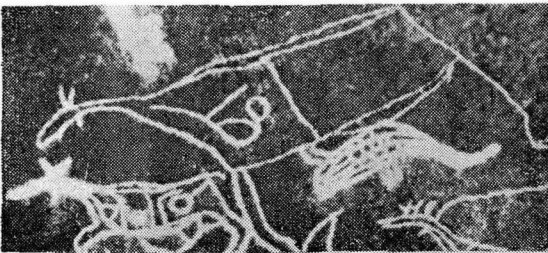


b. Siberia의 岩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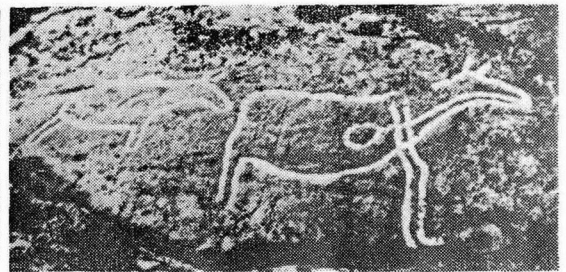


a. 沿海州의 암각

4. 内部 表現線파기 (第Ⅲ 形式)을 사용한 岩刻



b. Skogerveien, Drammen, No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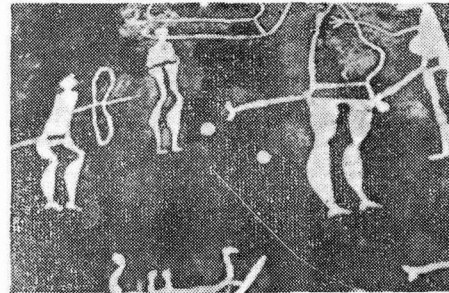


a. Evenhus, N. Trøndelag, No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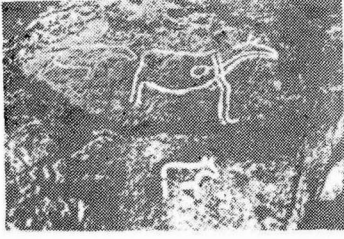
5. 심장을 렌트겐 法으로 表現한 岩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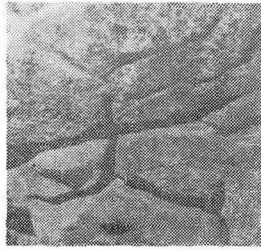
7. 第Ⅱ技法 V形式을 사용한 岩刻 : 남해 尙州



6. Sweden, HvarlösBohu slän의 岩刻



10. Hunerets' Art의 신석기시대 암각: EvenhusN. Trødnelag, Nor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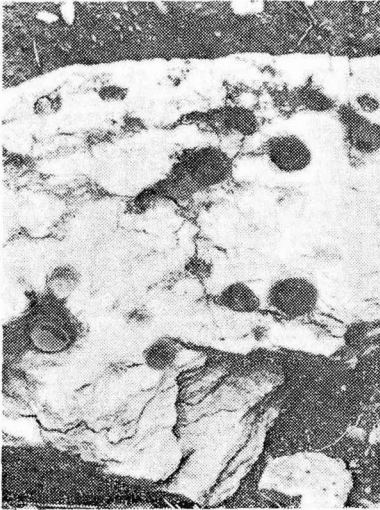
9. 第Ⅱ技法을 사용한 始興 三聖山の 岩刻



8. b. Denmark, Viborg의 岩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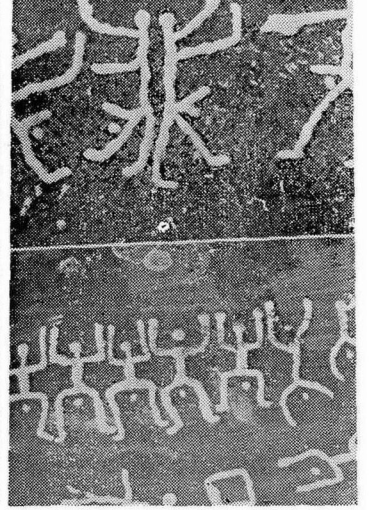
8. a. 第Ⅲ技法을 사용한 岩刻 良田里 알바위



b. 한국의 성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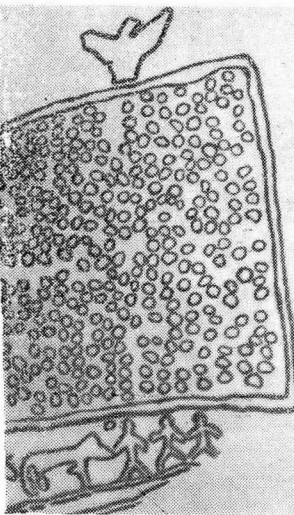


a. Denmark의 성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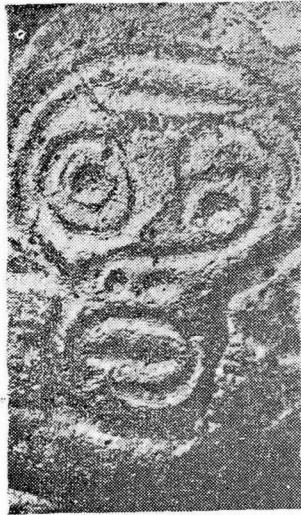


12. 性穴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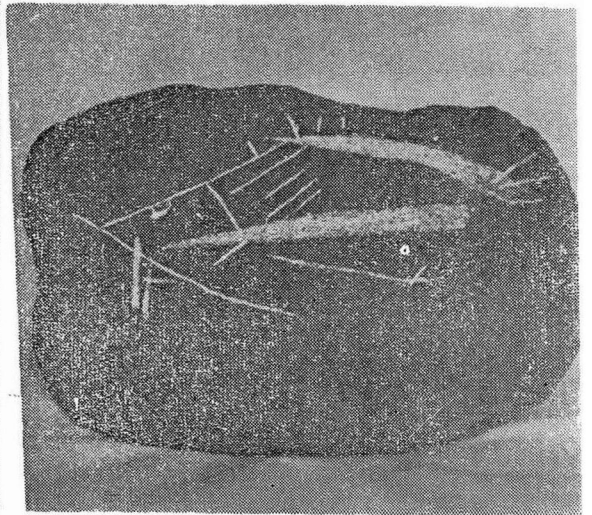
11. 表現主義 Style로 變해가는 集銅期 岩刻 : Alps지방 Naguance Val Camonica



15. Siberia의 性穴



14. Siberia의 人面



13. 漁練刻(문호리 지석묘 下部出土)

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수렵인 岩刻은 이 技法에 의해 製作되고 있으며 이 技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新石器時代의 岩刻이다. 그러나 이 技法은 靑銅器時代에 내려오면서도 계속 一部 사용되었었다.

그리고 제Ⅱ技法을 사용한 岩刻은 대부분 靑銅器時代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線刻은 金屬利器를 사용했을 때 가능해지는 岩刻이다. 鐵器時代에 製作된 岩刻은 線의 폭이 좀더 좁아지며 깊이가 보다 깊어지는 까닭에 靑銅器時代 岩刻하고는 자연히 區分된다. 韓國의 경우에서 이러한 岩刻은 川前里의 新羅時代 騎馬人 彫刻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一般的인 先史時代 岩刻하고는 區分이 된다.

제Ⅲ技法은 新石器時代의 純粹한 狩獵人 岩刻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순수한 수렵인의 암각은 動物과 수렵광경과 人物等 그 岩刻 對象이 극히 限定되어 있다. 그러나 定着農耕文化의 岩刻에서는 農耕의 광경、漁撈의 광경 등이 초가 되며 이러한 두개의 다른 系統의 岩刻要素들이 함께 混合되어서 發見되었을 때 이 岩刻은 순수한 수렵인 岩刻의 後期로서, 수렵농경과의 混合文化의 岩刻으로서 外國의 경우 벌써 靑銅器時代文化의 岩刻으로 변한 文化遺跡이라고 보고 있다. ⑤ 그러므로 제Ⅲ技法과 함께 나타나는 수렵인 岩刻의 絶對年代도 일단은 靑銅器時代文化하고 關聯해서 分析되고 있는 것이다. 제Ⅲ技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Scandinavia에서는 靑銅器時代이면서도 中期 이후 靑銅器文化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실은 Denmark에서 靑銅器時代文化의 각종 文樣 가운데서도 靑銅器時代 中期以後에 나타나는 文樣이 이러한 제Ⅲ技法에 의해 製作된 岩刻에서 發見되며 이러한 岩刻들이 靑銅器時代의 石箱墓 등에서 發見된 例에 의해서 證明되고 있다. ⑥

이러한 外國의 例가 直接的으로 韓半島의 岩刻의 性格을 規定지어주는 資料로 使用될 수는 없지만 우선 韓半島의 岩刻에서 이들 各地域에서 發見되는 技法이 모두 다 發見되며 그 岩刻의 性格에서도 類似點을 發見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 볼 必要가 있다.

三、各 技法에 의해 製作된 岩刻形式

岩刻의 刻線을 만드는 彫刻技法은 3개의 技法으로 極限되지만 이러한 3가지 技法을 使用해서 製作되는 岩刻 自體의 製作形式에는 여러가지 類形이 있다. 韓半島에서 發見되는 岩刻도 이 3가지 技法을 使用하여 모두 12개의 形式으로 區分되는 것을 이번 調査에서 밝혀낼 수가 있었다.

韓半島에 있어서 발견되는 岩刻畫의 形式은 蔚州 盤龜臺에서 다섯가지의 製作形式이 使用되었었다고 報告되어 있으나 ⑦ 이것은 정확한 意味에서 3개의 基本形式으로 製作되어지고 있으며 더 細分했을 때에는 六개 形式으로 分類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研究 調査에서 밝혀낼 수가 있었다. 文明大氏는 盤龜臺의 岩刻을 五가지 形式에 의해 製作되었다고 報告했으나 이번 調査에서 한가지의 形式이 더 追加된 것은 文明大氏가 未完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은 岩刻製作의 독특한 한가지 形式이기 때문이다. 즉 다음에 설명할 철충식과 기형식이 그것으로 이 形式의 岩刻은 韓國의 蔚州 盤龜臺의 動物 岩刻에서만 發見되는 것이 아니고 隣接地域인 Siberia와 Martine region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⑧ 이것은 모두 岩刻製作의 한가지 독립된 形式으로 外國의 學者들이 간주하고 있는 形式임으로 그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韓國의 岩刻에서도 하나의 獨立形式으로 設定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蔚州 盤龜臺를 除外한 南海 良阿里、南海 尙州里에서 그리고 始興 三聖山의 岩刻에서는 各各 單一技法이 使用되고 있는 것을 이번 調査에서 發見하였다. 그리고 高靈 良田里의 岩刻도 역시 알아내는 單一形式에 의해 製作되어 있고 蔚州 川前里의 岩刻에서는 2개의 技法이 함께 發見되었다.

이러한 모든 岩刻의 製作技術과 形式을 綜合分類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2)

韓半島의 岩刻에서 제Ⅰ技法을 使用한 岩刻의 3개 基本形式은 對象物의 모습을 모두 조아 파내는 모두 파기형식(I형식)과 단순히 對象物의 輪廓만을 조아서 파내는 單純輪廓線 파기형식(II형식) 그리고, 對象物의 一部는 모두 파내고 나머지는 輪廓線만을 파내서 만들어 내는 절

총과기형식(III형식)의 3가지다. 이 제I技法의 I형식을 더 細分類해 보면 두가지의 약간 다른 類型으로 나눌 수가 있다. 즉 全面을 깊게 모 두 파내는 형식(I)과 옆계 전면만을 모두 파내는 형식(I₁)으로 나누 어진다.

이 제I₁型式은 처음에 岩刻 對象物의 輪廓을 조아낸 후 그 內部全面 을 깊게 조아낸 것으로 岩刻 自體가 一種의 せ리엘의 효과를 나타내는 刻畫이다. 그러나 조아낸 자리는 대개가 다듬어진 것이 많지만 全面 조 아내기에 있어서 매우 거친 것도 나타난다. ⑨

제I₂형식은 岩刻 對象物의 內部全體를 아주 옆계 彫넌 것으로서 I₁形式에서 나타나는, 깊이가 율곡파여 들어 간 것이 아니라 全面을 약간 조아낸 것으로 形態의 모습만 알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뜻 보기에 는 I₁型式을 만들다가 未完成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으나 이 런 類型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하나의 類型으로 分類해야 만 옳다. ⑩

제II형식은 단순윤곽선 과기형식이다. 이 形式을 使用한 岩刻도 細分 했을 때 3개의 두드러진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岩刻 對象物을 단순히 조아낸 線으로 표현하는 단순 외형선과기형식(II)과 소위 렌 트젠 方式이라고 불리는 岩刻 對象物의 內部構造를 조아낸 沈線으로 표현하는 內部表現 線과기형식(II₁), 그리고 단순선과기 수법에서 심 장등의 극히 一部分의 기관만을 더 파놓은 일종의 절충형에 속하는 형식 II₂의 세가지 形式이 있다.

제II形式을 細分한 3개의 形式中 제II₁형식은 많이 사용되는 岩 刻方法으로 對象物의 輪廓을 조아내서 형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岩刻에서부터 鐵器時代에까지 내려오면서 이 方法을 使用한 岩 刻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形式의 岩刻에는 輪廓線이 넓고 깊게 새 겨진 것과 얇고 좁게 새겨진 것이 있으나 모두 單一形式에 속하는 것입 은 의심할 바 없다.

제II₂형식은 內部表現線과기다. 이 方式은 흔히 투시형식 또는 렌트 젠형식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다. 動物의 內部構造인 심장이나 내장 또 는 근육 등을 線으로 描寫하는 形式으로서 이러한 形式의 岩刻이나 彩

色畫 또는 彫刻品은 대개 動物 사냥을 식량 획득의 수단으로 使用하는 文化를 가진 人類의 거의 共通의 藝術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特別 岩刻中 Hunter's Art에 속하는 岩刻에서는 어느 地域에서든지 다 찾아 볼 수 있는 形式이다. (사진 4) 이 形式은 오늘날의 Australia의 aborigin의 美術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II₂형식은 內部表現線과기와 단순윤곽선과기의 절충형식이 다. (사진 5)

이 形式은 輪廓線과기를 한 彫刻 對象物의 內部的 重要기관 一部分 을 조아서 表現한 形式으로 주로 심장 등의 內部기관을 새기고 그 외의 것을 새기는 것은 생략한 形式이다. 언뜻 보아서 제II₁形式의 未完成 品 같기는 하지만 그러한 形式이 外國의 여러 岩刻에서 集中的으로 發 見되기도 하며 韓半島에서도 반구대 岩刻에서 상당수가 發見됨으로 일 단 分離된 하나의 새로운 形式手法으로 보아야 한다.

제III形式은 제I形式인 모두 파내기와 제II形式인 단순윤곽선과기의 두가지 형식의 절충형식이다. 언뜻 보아서 제I形式의 未完成品 같기도 하다. 그러나 岩刻物中에서 이 形式을 使用한 岩刻의 대부분이 어떤 구획된 부분을 정확하게 分離해서 제I形式에서 發見되는 모두 파내기를 하고 나머지는 제II형식인 단순 輪廓을 파내서 對象物의 形式을 만든 것으로 이러한 形式手法은 주로 動物 人物 등의 岩刻에서 나타나고 있 어(사진 6) 일단 전환기적 형식의 하나로 分離하여 區分되어야 한다. 韓國의 岩刻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形式에 대해서 이것을 제I形式의 未完成品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⑪ 그러나 韓國의 隣接 地域내지 外國 岩刻에서도 이러한 形式이 하나의 完全히 區分된 形式手 法으로 나타나며 韓國의 岩刻中에서 나타난 이 形式의 岩刻이 하나나 둘이 아닌 까닭에 일단 새로운 形式手法으로 分類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된다.

제II技法을 使用한 韓國의 岩刻은 2개의 基本形式으로 分類된다. 하 나는 單純輪廓線 파내기(IV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線表現 파내기(V)이 다. 이 제II技法을 使用한 두 形式은 모두가 沈線을 그어 파내어 岩刻 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두개의 基本形式은 각각 금속을 사용한 것과 뽕

죽한 돌 끝을 사용한 두가지 形式으로 다시 細分類가 된다.

제Ⅳ形式은 岩刻對象物의 輪廓線을 沈線으로 그어 파내는 形式으로 제Ⅰ技法 Ⅱ形式과는 형식상으로는 같은 岩刻 方法이다. 그러나 刻線을 만드는 方法에서 조아 파내는 것이 아닌 그어서 파내는 方式이기 때문에 刻線의 上部폭이 Ⅱ형식보다 좁고 (1cm 미만) 깊게 V혹은 U형으로 파여지는데 Ⅲ形式으로 分類되는 날카로운 돌 끝을 位置으로 사용한 形式은 대개가 U型的 약간 굽은 沈線이 되며 Ⅲ形式으로 分類된 금속利器를 사용한 刻線은 날카로운 V型 沈線이다. 그러므로 이 두 方法을 사용한 岩刻은 Ⅱ形式이 Ⅲ形式보다는 線의 넓이가 더 좁고 5mm에서 1cm) 깊고 그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岩刻 自體는 비교적 Detail가 생략된 單純化된 것이 많다.

제Ⅱ技法의 V形式으로 分類되는 岩刻形式도 역시 날카로운 돌 끝과 金屬利器로 沈線을 그어내서 만드는 方法은 Ⅳ形式과 같으나 이 岩刻의 특징은 人物이나 배 등을 岩刻하는데 있어서 單純 沈線하나로서 그 형태를 表現하는 데에 있다. 즉 사람의 몸을 한줄의 굽은 線으로 表現하는 形式이다. 이 V形式도 돌을 사용한 것을 V형식으로 金屬利器를 사용한 것을 V₁형식으로 分類하였는데 韓國의 岩刻中 V形式의 岩刻은 대부분이 V₁형식에 속한다.

이 V형식에 속하는 岩刻들은 너무도 單純化되어 세부를 생략한 것으로서 언뜻 보기에 符號化되다시피 한 刻線岩刻이다. 이와 같은 岩刻을 한때 古代文字로서 이해하려고 한적이 있다. ⑫(사진 7) 尙州와 碧蓮의 岩刻의 一部分이 이에 속하는데 그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된 理由도 이 岩刻이 너무도 형상이 單純化되다 보니까 物體의 描寫가 아닌 어떤 符號나 기호처럼 보이게 된 까닭이다. 岩刻畫에 대한 知識이 전혀 없던 時期에는 그것을 古代의 解讀不能의 文字로 보고자 한 것도 당연하다. 特히 南海 尙州의 岩刻의 경우 그것은 先史時代 以後에 와서 누군가가 먼저 새겨진 岩刻을 다시 더 파낸 것이기 때문에 그 刻線이 너무도 새롭고 形式이 原形式보다 약간 변형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한때 이 岩刻을 古代文字로 보아 『朝鮮金石總覽』에서도 古代의 解讀不能의 文字로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先史時代의 岩刻에 대해 後代에 와서 다시

손을 낸 理由는 圖說이나 「徐氏過此」라는 地方 傳說의 확립을 위해 어느 호사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이 岩刻에서 아직도 先史時代 岩刻의 原形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근처 碧蓮리에 있는 같은 時期의 先史岩刻이 後代의 손상을 받지 않은 상태 그대로 保存되어 남아 있어서 이 2개의 岩刻을 서로 比較해서 볼 때 이 2개가 같은 形式의 岩刻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러한 推定을 내릴 수가 있다. 碧蓮리의 岩刻이 있는 곳과 尙州의 岩刻이 있는 곳은 거리상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先史文化 地域으로 생각해야 할 곳이다. 이 두 곳에서 같은 形式의 岩刻이 出現했다는 사실로서 尙州岩刻의 文化的 位置는 변런리 岩刻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Ⅲ技法을 사용한 岩刻은 現在 韓國에서 發見되는 것에 2개의 形式이 있다. 그리고 아직 韓國에서는 發見例가 없지만 Siberia와 Maritime Region에서 상당히 많이 發見되는 形式으로서, 物象의 全體를 잘아내서 그 形態를 나타내는 形式이 있는데, 이러한 岩刻形式도 앞으로 豫見되는 形式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제Ⅲ技法을 사용한 韓國 岩刻의 한 形式은 單純線 잘아내기(V₁형식)인데 제Ⅰ技法의 Ⅱ形式과 제Ⅱ技法의 Ⅳ形式과 比較가 되기는 하나 刻線의 製作方式이 처음부터 아주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이 形式에서는 輪廓線의 沈線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 약간 조아낸 후 잘아내거나 直接 그 線을 처음부터 잘아내어 뚜렷하게 만든 것이다.

이 形式을 사용한 岩刻은 川前리의 上部岩刻의 人面岩刻 기타 幾何學 文樣⑬과 良田里 알바위의 幾何學文樣⑭ 그리고 南海 尙州의 Sun mark 등이며 문질러 잘아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沈線의 폭이 岩刻중 가장 넓어 폭이 1cm—3cm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며 어떤 것은 線의 넓이가 5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그 대신 沈線의 깊이는 대개 1cm 內의 얇은 것이 특징이다. (사진 8) 이러한 Ⅵ形式 岩刻은 다른 岩刻과 比較해서 벌써 物象을 表現하는 岩刻의 範疇에서 벗어나는, 抽象化되기 始作한 岩刻들이다. Ⅵ形式에 비해서 또 다른 뚜렷한 하나의 岩刻形式은 Ⅶ형식의 岩刻인데 이 岩刻은 單純한 性穴로 代表되는 형식이다. 幾何學的

文樣 등을 동반하지 않은單純한圓形性穴만을 岩刻하는 性穴만의 岩刻은 性穴의 크기가 직경 5cm에서 10cm에 이르는 大形單純岩刻으로서 全國的으로 제일 많이 發見되며 그 數도 現在 硯峯을 넘게 發見되는 岩刻이다. ⑮

이러한 岩刻은 V形式 岩刻보다는 더욱 抽象的인 意味의 岩刻으로서 宗教的인 意味는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完全히 物象을 對象으로 表現하는 岩刻畫의 範疇에서 벗어난다.

지금까지 調査한 3가지 技法을 使用해서 만든 韓國 岩刻의 여러 形式은 基本的으로 7개 形式인데 더 細分한 結果 모두 12개로 더욱 分類될 수 있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다. 이러한 岩刻의 技術的인 分類가 곧 岩刻製作의 年代測定에 絕對的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理由는 砮아 파기의 方法에서도 砮아 파낸 후 다시 그어 파기를 해서 輪廓을 다듬는 方法까지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여러 形式중 어느 한 形式이 一個 地點에서, 다른 形式이 다른 地點에서 集中的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形式과 對象岩刻物의 聯關係를 比較 검토했을 때 文化性格의 차이와 製作時代의 인 차이가 存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으로 技法을 중심으로 하여 岩刻의 형태를 聯關係 比較했을 때 相對年代에 의한 製作時期의 先後關係는 확립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런 意味에서 韓國의 岩刻 技術을 分類하고 여기에 따라 各 岩刻物의 分布를 再整理하여 이러한 岩刻問의 어떤 연관關係를 通出해내서 韓國 岩刻의 文化性格을 誘導해내는 研究過程은 필수적인 作業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研究의 基礎作業으로서 일단 韓國의 岩刻의 技術과 그 形式을 現在까지 發見된 範圍內에서 分類調査해 보았다.

三、各 技法에 의한 岩刻의 內容과 分布

지금까지 韓半島에서 發見된 岩刻의 技法을 分類해 보고 또 이 技法에 依해 製作된 各 岩刻 手法形式을 細分하여 岩刻에 使用된 技術을 밝혀 보았다.

이러한 分類에 따른 韓國 岩刻의 內容分析을 시도해 보고 그 分析에 따라 發見場所와 岩刻物 數의 關係, 그 分布狀態를 살펴 보겠다. (표 3)

蔚州 盤龜臺 岩刻의 完全한 內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岩刻의 數를 種類別로 精確하게 分析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現在까지 發見 發表된 全國의 岩刻의 數를 比較해 보면 蔚州 盤龜臺의 岩刻에서는 動物이 二〇點 人物像이 八點 漁獵 狩獵 光景이 五點 등으로 單一地點에서 發見된 刻畫의 數로는 단연 많다. 이들은 모두가 제 I 技法의 6개 形式에 속하거나 어느 形式의 刻畫가 제일 많은지는 아직 調査分析 結果가 發表되고 있지 않다.

제 II 技法을 使用한 4개 形式의 岩刻에서는 動物이 一點 배가 一點 人物이 八點으로 動物이나 기타 岩刻보다 人物이 훨씬 더 많다. (사진 9) 제 III 技法의 2개 形式을 使用한 岩刻은 全國에서 가장 많은 수가 發見되고 있으나 이 岩刻들은 性穴과 幾何學的 文樣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보여 주고 있다. 이 技法을 使用한 岩刻 중에서 幾何學的 文樣이나 性穴이 아닌 다른 岩刻物은 人物이 三點이고 動物이 一點으로 여기서는 人物이 動物보다 많다. 이러한 岩刻對象物의 種類를 比較 검토할 때 性穴과 幾何學的 文樣을 除外한 物象 岩刻에서 볼 때 뚜렷하게 區分되는 두 개의 흐름을 發見할 수가 있다. 그것은 對象物體 中の 動物과 人物의 數의 內容을 비교 검토할 때 動物의 수가 압도적인 岩刻과 人物의 수가 압도적인 岩刻의 두 종류로 區分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各 技法에 따라 分類해 보면 제 I 技法에서는 動物의 암각이 主로 幾何學的 文樣이 發見되지 않으며 제 II 技法에서는 人物의 岩刻이 主가 되며 제 I 技法에서와 같이 幾何學的 文樣 등은 전혀 發見되지 않고, 제 III 技法에서는 物象 岩刻에서는 人物 등이 主가 되나 絕對的인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幾何學的 文樣과 性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韓國의 岩刻도 各 岩刻 技法에 따라 內容이 分類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現在까지 發見된 岩刻에서 性穴을 除外한 다른 岩刻의 分布를 技法에 따라 모아 보면 제 I 技法을 使用한 岩刻이 二個 장소에서 발견되어 있고, 제 II 技法을 使用한 岩刻은 五個 장소이고, 제 III 技法을 使用한 岩刻이 三個 장소이지만, 여기에다가 같은 技法으로 製作된 性穴의 分布까지 포함하면 韓國의 岩刻의 大部分은 제 III 技法에 의해 彫刻된 것으로서 全國

의 인 分布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技法과 形式에 따르는 內容의 검토를 通해 일단은 相對年代에 의한 先後의 順位는 決定지어질 수 있다. 즉 제 I 技法에 의해 製作된 岩刻은 一般的으로 狩獵人 岩刻으로 불리우는 범주에 속한다. 단 지 이 岩刻 속에 어로의 岩刻과 배의 岩刻이 있다는 것은 손주 狩獵人 岩刻보다는 後期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여지는데 손주한 狩獵人 岩刻에 속하는 岩刻은 外國의 경우 주로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⑩(사진 10) 그러나 盤龜臺의 岩刻의 경우, 純粹 狩獵人 岩刻 보다는 青銅器時代의 岩刻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계통의 岩刻이 적은 수지만 함께 나타남으로 일단은 新石器時代 後期 岩刻으로서 青銅器文化와의 접촉을 가진 때의 岩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I 技法에 의한 岩刻에 比較해 보면 형식상 제 II 技法과 제 III 技法 岩刻은 後期의 것이다. 즉 제 II 技法은 엄연히 金屬利器로서 岩刻된 것임으로 青銅器時代 以後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제 II 技法에 의해 製作된 刻畫는 彫刻線들이 單純化되기 始作한 것으로서 벌써 人物의 彫刻은 單純한 線에 의해 圖形化한 것이다. 이것은 이 岩刻이 사실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表現主義의 圖形으로 변화가는 韓國 隣接地域의 青銅器時代 岩刻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사진 11)

이러한 제 II 技法의 岩刻에서 人物像 옆에 그 人物이 女性임을 알려주는 性穴이 나타나는데 이 性穴은 단순히 性穴만 岩刻한 그런 後代의 것 보다는 훨씬 크기가 적은 것들이다. 外國의 경우 性穴을 原來 人物 岩刻의 옆에 새김으로써 女性的 상징으로서 岩刻되었던 것이다. ⑪ 그러나 그 후 점차로 豊饒와 生産이던 女性的 人物 岩刻이 쇠퇴되면서부터 人物 線刻은 사라지고 性穴만을 새기게 된다. 즉 青銅器 後期의 岩刻은 人物 動物의 實像이 없�지면서 幾何學的 文樣이 出現하고 이 文樣에 결들여 性穴이 새겨지다가 나중에는 性穴만 크게 岩刻되기 시작한다. (사진 12)

이러한 外國의 性穴의 변화과정을 감안해 볼 때 性穴이 外國의 경우와 比較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까닭에 우리의 岩刻도 일단은 그런 發展過程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 II 技法을 사용한 岩刻

과 제 III 技法을 사용한 岩刻은 자연히 그 先後關係가 결정된다. 즉 後期 性穴 岩刻을 多數 수반하는 제 III 技法에 의한 岩刻은 前期 形態의 性穴 岩刻을 가진 제 II 技法 岩刻 보다는 後期에 彫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分類해 보면 우선 제 I 技法 岩刻 後에 제 II 技法 岩刻이 韓半島에 나타나고 그 후 제 III 技法 岩刻이 나타나게 된 相對年代에 의한 先後關係의 순위가 확립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제 I 技法에 의해 製作된 蔚州 盤龜臺의 動物 岩刻 中에서 I 形式인 모두파기와 II 形式인 선파기 두개의 形式의 先後關係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단서가 보고되고 있다. 즉 모두파기를 한 古來의 그림위에 線파기로 새겨진 호랑이의 그림이 중복되어 조각되어 있어서 線파기 그림이 모두파기 그림보다 後에 岩刻되었다는 것이다. ⑫

그러므로 제 I 技法의 I 形式이 II 形式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III 形式은 韓國 隣接地域의 例에서는 II 形式 보다는 大개 後期에 製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하여 暫定的으로 II 形式보다 일단 後期作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제 II 技法을 사용한 IV 形式과 V 形式은 形式으로는 先後關係를 확정 지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現在 發見되고 있지 않다. 다만 金屬利器를 사용한 ㄷ와 ㄹ형식은 자연히 그 製作順序가 金屬使用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性格과 年代는 확정되어 온다. 그러나 ㄴ형식과 ㄹ형식의 先後關係는 아주 애매하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ㄴ형식은 舊石器時代의 岩刻에서부터 新石器時代 岩刻에 걸쳐 長期間에 걸쳐 사용되어 오던 形式이라는 점과 ㄹ형식은 外國의 경우 이러한 單純線으로 人物 등을 表現하는 方法은 金屬이 사용되기 이전의 岩刻에서는 發見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두 形式의 性格 파악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한 장소에서 이러한 두형식이 함께 發見되는 경우는 韓國 岩刻에서는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다. 다만 ㄴ형식은 金屬을 사용한 ㄴ형식과 함께 南海 良阿里에서 發見되는 대신 ㄴ형식은 支石墓의 築造에 쓰인 자갈돌 속에서 發見되어 그 製作時期가 新石器 後期 또는 青銅器 初期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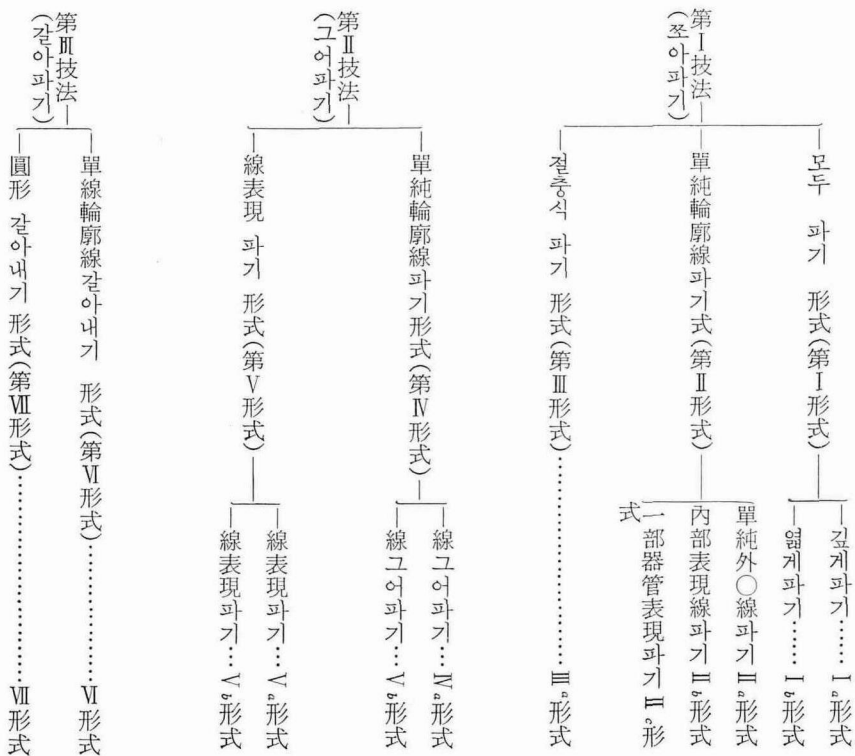
(表1)

岩刻所在地名表

技法	所 在 地	發現場所	備 考
第1技群	慶尙南道 蔚州郡 彥陽面 太谷里 盤龜臺 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良阿里	自然岩壁上 自然岩石上	東國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京畿道 陽平郡 西終面 汝湖里 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尙州里 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碧蓮里 慶尙南道 蔚州郡 斗東面 川前里 京畿道 始興郡 三聖山頂 全羅北道 扶安郡 行安面 堂下里	河川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慶熙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東國大博物館調查 石太輪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第2技群	京畿道 楊州郡 和道面 琴南里 京畿道 楊州郡 兩水里 京畿道 陽平郡 陽平邑 京畿道 陽平郡 龍門寺	6基의 支石墓上 支石墓上 支石墓上 支石墓上	慶熙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慶熙大博物館調查
	全羅南道 和順郡 綾川面 寒泉里 全羅南道 長城郡 長城邑 龍興里	支石墓上 支石墓上	全南大調查 全南大調查
第3技群	全羅北道 益山郡 미곡산정 전라북도 무주군 구천동	山 頂 支石墓上	石太輪調查 慶熙大初大調查
	慶尙南道 南海郡 二東面 良阿里 慶尙南道 山淸郡 今面 特里 慶尙南道 山淸郡 丹城面 立石里 全羅北道 南原郡 南原邑 竹港里 慶尙北道 高靈郡 開津面 良田里 慶尙南道 蔚州郡 斗東面 川前里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立岩上 支石墓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自然岩石上	張俊根調查 張俊根調查 張俊根調查 嶺南大博物館調查 東國大博物館調查 東國大博物館調查

(表2)

韓國先史時代 岩刻技法 및 形式分類表



같은 성격의 岩刻文化가 存在하였을 때 일단 一次流入過程으로서 考慮의 對象으로 삼아 韓國岩刻의 技法과 形式 그리고 製作順位를 設定해 보았다.

앞으로 韓國岩刻하고 隣接地域과 其他 外國의 岩刻과의 比較研究는 마땅히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岩刻이 獨自의 自然發生하였다는 證據가 없는 系統 또는 文化의 聯關性과 流入經路는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製作手法과 形式分類에 있어서 韓國隣接地域과 的 比較檢討는 不可避하였다.

四、맺는 말

韓半島의 岩刻의 技法과 그 形式을 細分하여 體系化시켜 보았다.

韓半島의 岩刻은 發見된지가 오래지 않았고 또 그 數도 극히 限定되어 있어 充分한 資料를 가지고 調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現在까지 發見된 岩刻만도 상당히 폭넓은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 까닭에 大體的인 分析整理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번 調査를 試圖하였다.

現在까지 調査된 結果 韓半島內의 先史時代岩刻에서는 世界의 다른 地域에서 發見되는 岩刻의 基本的인 三個技法이 모두 다 나타난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즉 第一技法인 쪼아파기(Pecking Technique)와 第二技法인 그어파기(Etching Technique) 그리고 第三技法인 갈아내기(Grinding Technique)가 모두 發見되고 있다. 韓國의 岩刻은 이러한 技法을 使用하여 모두 12個의 形式으로 나누어지는 폭넓은 것이었음을 이 分類調査에서 밝혀냈다.

이번 調査에서 밝혀진 結果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一技法을 使用한 6個의 岩刻 形式은 現在 모두 오후 반구대의 動物人物 狩獵 漁撈 岩刻과 南海島의 양아리의 발자욱 岩刻에서 發見되고 있다.

이 여섯개의 形式手法은 基本的으로는 모두 파기(I形式) 單純 輪廓線 파기(II形式) 그리고 折衷式 파기(III形式)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더 細分하면 여섯개의 類形으로 分類되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年代設定

에 있어서 매우 重要な 資料임을 알 수 있었다.

② 第二技法을 使用한 岩刻은 基本的으로 單純 輪廓線 파내기(IV形式)와 線表現 파내기(V形式)의 두가지였으나 이것을 더 細分類했을 때 날카로운 돌말은 道具로 使用한 <A>, 形式과 金屬利器를 道具로 使用한 <C>와 <D>의 各形式으로 細分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技法을 使用한 韓國의 岩刻은 거의 모두가 單純化된 岩畫系에 속해 있으며 南海島의 尙州里와 碧蓮里의 狩獵 광경 人物 等에 찾아볼 수 있었고 楊州郡 西終面 文湖里의 魚線刻畫, 京畿道 始興의 三聖山 人物岩刻 그리고 蔚州 川前里 岩刻의 下部部分에서 나타나는 岩刻이 모두 이 技法을 使用하였었다. 이러한 技法을 使用한 韓國의 岩刻들은 모두가 寫實主義的 岩刻에서 表現主義的 岩刻으로 移動해간 단계의 岩刻으로 보여지며 이들은 金屬利器를 使用했던 靑銅器文化와 聯關되는 岩刻들이었음을 밝혀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岩刻은 第一技法을 使用했던 岩刻들보다 後期에 製作된 것으로 일단 整理할 수 있었다.

③ 第三技法을 使用한 韓國의 岩刻은 單純線 갈아파기(VI形式)와 圓形 갈아파기(VII形式)로 分類된다. 이 III技法을 使用한 VI形式의 岩刻은 大部分이 幾何學的 文樣과 特殊한 Sunmark 等을 岩刻하는데 使用되었고 VII形式의 岩刻은 韓國에서 가장 많이 또 넓게 發見되는 性穴岩刻에 使用된 岩刻手法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다.

④ 岩刻의 對象物을 分析整理한 結果 第一技法을 使用한 岩刻이 주로 가장 오래된 岩刻으로서 動物 等이 主 岩刻對象物이었고 第二技法을 使用한 岩刻이 그 다음으로 오래된 岩刻으로 靑銅器文化와 聯關되는 岩刻들이며 人物들의 岩刻이 主對象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일 後期에 製作된 岩刻이 벌써 岩刻對象物이 抽象的인 幾何學的 文樣이나 性穴 등의 岩刻들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⑤ 各技法에 따르는 岩刻의 相對年代 測定에 의한 製作時期의 先後關係의 順位決定은 全體的인 比較 검토에서 技法上으로는 제I技法이 가장 먼저 使用된 技法이었음을 製作形式과 韓國 隣接地域岩刻하고의 비교 검토에서 設定할 수 있었고, 제II技法이 金屬利器를 使用했던 點과 岩刻의 形式 검토에서 그 다음 時期의 製作品들이었음을 밝힐 수가 있

었다. 그리고 제Ⅲ技法을 사용한 岩刻은 벌써 對象物象이 幾何學的의 文樣으로 변했고 그것이 또 純粹한 性穴 岩刻으로 변한 과정과 이것 역시 韓國 隣接地域의 岩刻하고 比較 검토해서 靑銅器時代 後期에서 初期鐵器時代에 걸쳐서 製作된 韓國 先史岩刻 중에서는 가장 後期の 岩刻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대체적인 順位를 밝히고 보면 各形式도 이에 따라 자연히 相對의 先後關係가 확립되었다. 그 結果形式도 그 相對的 順位가 일단 정해졌는데 그것은 가장 빠른 時期의 形式으로부터 整理해보면, I형식이 가장 오랜 형식이요, 다음에 II형식과 III형식 그리고 IV형식과 V형식이 뒤따르는데 이들 두 形式은 거의 같은 時期에 製作되었다고 보여지며 제VI형식이 그 다음 단계이며 제VII형식이, 韓國 先史岩刻의 가장 後期의 製作形式이었다는 先後關係를 일단 밝혀 볼 수 있었다.

岩刻 製作手法에 관한 이번 研究 調査는 앞으로의 韓國 岩刻 文化의 位置 性格의 확정과 그리고 그 製作年代를 밝히는 研究作業의 일환으로 試圖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岩刻資料의 發見이 豫想되는 마당에서 이 研究 調査가 最終的인 研究가 아님을 밝혀 둔다. 다만 이러한 研究는 岩刻文化와 聯關되는 韓國 先史文化 研究에 必要不可缺한 部分의 하나로서 누군가가 研究를 始作해야 할 部分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 意味에서 이번 처음 으로 그 技法과 形式分類를 일단 整理하였다.

더 좋은 資料가 앞으로 나타나서 이 次의 調査研究가 계속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註

- ① Glov, P. V. 1969; Hellestringer; Danmark, Odense, Jyske Arkeologisk Selskab pp. 12~13
- ② 上掲書 p. 12
- ③ 上掲書 p. 12
- ④ 上掲書 pp. 12~13

- ⑤ Hagen, A. 1967; Norway, London, Thames and Hudson Co. p.
- ⑥ Bro-Jorgensen, Marianne, 1966; Billeder af viborg amts Forhistorie, p. 70, Viborg, Historis Samfund. for Viborg amt.
- ⑦ 文明大 一九七三「蔚山の 先史時代 岩壁畫」『文化財』第七號 pp. 36~37 서울 文化財管理局
- ⑧ Okladnikov, A. P. 1972; Der hirsch mit dem goldenen geweih, Weisbaden, F. A. Brockhaus Plate 17
- ⑨ 文明大 1973; 前掲文 p. 36.
- ⑩ 文明大 1973; 前掲文 p. 37
- ⑪ 文明大 1973; 前掲文 p. 37
- ⑫ 抽稿 1972; 南海島 先史時代 岩刻畫 內학주보 第四五二號 三月一六日 字
- ⑬ 金元龍 1973; 原始美術·韓國美術全集一卷 서울 同和出版社 p. 138
- ⑭ 李殷昌 1971; 「高靈 良田里 岩畫調査略報」『考古美術』一一二號 서울 美術史學會 pp. 24~26
- ⑮ 抽稿 1974; 「韓國先史時代 性穴考」『地域開發論文集』5輯 서울 國土開發研究 p. 24
- ⑯ 文明大 1973; 前掲文 p. 36
- ⑰ Davidson, H. R. Ellis, 1967; Pagan Scandinavia, London, Thames and Hudson, p. 17
- ⑱ 抽稿 1974; 前掲文 p. 25
- ⑲ 文明大 1973; 前掲文 p. 38
- ⑳ 抽稿 1974; 楊平郡 西宗面 汝湖里遺蹟 調査報告 八堂昭陽면 水沒地區 遺蹟發掘 綜合調査報告 서울 文化財管理局 pp. 345~346
- ㉑ 抽稿 1974; 前掲文 p. 33
- ㉒ 金元龍 1973; 前掲書 p. 138
- ㉓ Okladnikov, A. P. 1972; 上掲書 p. 99